

時調의 初期形態 考察

成 吳 慶*

一. 序 論

1920年代 後半 이래 고조되기 시작한 時調에 대한 관심은 그 形態(形
式)에 대해 많은 論議를 불러 일으켜 春園·鷺山·가람·陶南·自山 등이
新聞·雜誌를 통해 각자의 견해를 활발히 발표하였다.¹⁾ 또 解放 이후에
도 時調形態에 대한 논의는 繢出한 國文學史·時調研究單行本·論文 등
을 통해 계속되어 왔다.²⁾

이들의 논의는 時調의 基本型(또는 基準型)을 설정하고, 그 형태적
특징을 말하며, 律格을 구명하는 등, 時調의 形態를 밝히는 데 많은 기
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거개가 시조의 형태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青丘永言 아래 時調集에 정착된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기
에, 시조형태의 全貌라기보다는 後期時調의 형태를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³⁾

* 博士課程(國文學 專攻)

1) 이들의 논의 중 중요한 몇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李光洙, “時調의 自然律”, 〈東亞日報〉 1928.1.1.

李殷相, “時調短型芻謠”, 〈東亞日報〉 1928.3. 18~25.

李秉岐, “律格斗 時調”, 〈東亞日報〉 1928.11.12.

李秉岐, “古今時調의 形態”, 〈牛島史話와 樂土滿洲〉 1942.1.3.

趙潤濟, “時調字數考”, 〈新興〉 No. 4. 1931.1.15.

安廓, “時調詩學”, 〈朝鮮日報〉 1939.10. 5~7, 11~12.

2) 주요한 몇 편의 논문을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李泰極, “時調字數律再考察”, 〈국어국문학〉 No. 5. 1953.10.

鄭炳昱, “時調의 歷史의 形態考”, 〈現代文學〉 No. 45. 1958.9.

李能雨, “時調의 律性”, 〈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64.5.

李泰極, “時調字數의 韻律作用研究”, 〈梨大論叢(梨大韓國文化研究院)〉 No. 15. 1970.2.

3) 그 대표적인 예로서, 趙潤濟博士가 그의 시조형태 고찰을 위한 통계 대상

時調形態의 完成을 고려 末期로 잡는 것은 거의 通說로 되어 있는데, 6·700년의 오랜 기간을 통해 그 形態上의 變遷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논의에서는 여기에 注目하여 그 變遷樣相을 밝히려는 試圖가 거의 없었다. 다만 趙潤濟 박사가

그나마 原作이 된 後 口誦으로 傳하야 오다가 文字에 表記되었고, 또 以來 몇번이나 傳寫되는 時代에 그 時代人的 言語感情에 改作되어 온 關係上, 現代人の 時調가 되고만 高麗朝人の 그들의 作品이 果然 얼마나 原色을 보여주는지 疑心하지 않을 수 없으나…….⁴⁾

라고 하여, 初期 時調作品의 形態가 後代에 이르러 變貌되었다는 점에 대한 示唆를 나타내었고, 또 沈載完 교수가 「時調의 文獻的 研究」에서 時調作品의 變異樣相을 究明한 바⁵⁾ 있으나, 이는 「類似現象」의 要因과 作品에서의 變異樣相만을 밝히는 데 그치고, 이를 通時的으로 體系化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筆者は 壬亂 이전에 文集 등에 定着된 時調作品들의 形態가 壬亂 이후의 時調들에 보이는 形態와는 적지 않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着眼하고, 各種 時調集에 전하는 魔末에서 壬亂까지의 時調들이 그 定着에 이르기까지의 傳承過程을 통해 原形을 잃고 變異된 形態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留意하여, 壬亂以前의 初期時調의 形態의 特徵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 考察方法으로는 주로 初期時調와 後期時調의 統計上 對比에 의존

으로 「歌曲源流」를 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趙박사는 이 歌曲源流 소재 시조의 字數통계 결과로 時調의 基本形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이 견해를 그대로 따르거나, 또는 이를 토대로 하였다. 그런데 이 통계는 실제로 오류가 많아 신빙하기가 힘들다. 趙박사는 626수 중 평시조 411수를 통계낸다 하였으나, 中章에서 제 1 구는 268수, 제 2 구는 311수, 제 3 구는 412수, 제 4 구는 311수가 계산상에 나와 있어 정확성을 결하고 있으며, 또 그의 기본형도 실제 정확하지가 않다. (趙潤濟, 前揭論文 참조)

4)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121.

5) 沈載完, “第四章·作品에 對한 研究” 時調의 文獻的 研究, (pp.319-392 참조

하기로 하는데, 統計의 方法은 先學들의 그것과 大差가 없이 文面에 나타난 字數, 즉 音節數를 中心으로 하기로 한다.

字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첫째 가장 客觀的인 統計準據가 바로 이 字數(音節數)뿐이라는 점, 둘째 이 字數(音節數)는 대체로 音量과 相應하며 音節群이 가지는 音量의 長·短排列에 의한 長短律이 우리 시가의 律格을 결정하는 賽質이라는 점⁶⁾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시조의 형태를 音樂(唱)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는 일찍부터 대두되어 온 것이지만, 첫째 詩의 律格은 音樂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는 하나 반드시 符合되는 것은 아니라는 觀點⁷⁾에서, 둘째 시조의 형태를 음악(唱)과 결부시켜 비교하고자 한다 해도 그 대상이 될 만한 樂譜가 零星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런데 字數(音節數)의 比較라 해도 趙潤濟 박사의 경우에는 各音步의 全字(數範圍)와 最頻值를 抽出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나, 本稿에서 筆者는 音步別·句別·章別·字數(音節數)의 有義範圍와 頻出值, 그리고 音步間·句間·章間의 長短을 比較하여 리듬을 찾는 등, 多樣한 面貌를統計·分析하여 比較함으로써, 獨斷에 의해 實相의 파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그리고 些小한 差異나 偶然的인 현상까지도 마치 初期時調와 後期時調의 形態間의 두드러진 差異로 誤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統計들을 통해 一般的인 현상인지의 如否를 확인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드러나는 初期時調와 後期時調의 形態上 差異 및 初期時調의 形態上 特徵은 時調의 實相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多少間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하여 時調의 初期形態와 그 變遷樣相을 알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믿어진다.

6) 拙稿, “景幾體歌의 構造 研究”, 〈國文學研究〉 No. 49. 1980. pp22-32
참조

7) 上揭論文, pp. 18-20 參조

比較의 對象이 될 作品에 대해서는 「二」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그리고 덧붙여 밝혀 둘 것은, 本稿에서의 作品引用과 그 文獻上의 諸面貌는 주로 沈載完 교수의 「校本 歷代時調全書」와 「時調의 文獻的 研究」에 의거했다는 점이다.

二. 初期時調의 傳承 및 定着과 原形保存

1. 初期時調의 定着過程과 原形의 保存 및 變異

時調의 定着이라 함은 文獻上의 記錄化를 말하는데, 그 過程 및 方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作家自身에 의한 定着으로서 作家가 그의 生時에 직접 作品을 親筆로 또는 板刻으로 記錄하여 남기는 경우이다. 이에는 退溪 李滉의 自筆 板刻인 陶山六曲(其一, 其二)과, 松江 鄭澈의 親筆인 「長城萬理吹歌」, 李叔樸(聾巖 李賢輔의 第6子, 1519~1592)의 自作自筆本인 汾川講好歌 6首, 그리고 柳希春(1533~1577)의 眉巖日記草에 있는 感上恩歌(「머리를 고려귀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作家自身의 定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傳承을 통한 誤傳이나 變異의 餘地가 없이 그 原形을 그대로 충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當代 時調의 樣相을 克明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며, 또 이 作品들이 後代에 傳承되면서 他歌集 등에 再定着되는 경우 등을 통하여 初期時調形態가 後代에 어떻게 變貌되었는가를 살펴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둘째는 他人에 의한 定着인데, 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作家와 同時代 記錄者에 의한 定着과, 後人(子孫 및 後以의 記錄者)에 의한 定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者の 경우에는 약간의 誤傳 可能性은 있으나마 대체로 原形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게 되는데, 金天澤이나 金壽長 등이 그들과 同時代人인 作家의 作品을 青丘永言이나 海東歌謡 등에 수록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後자의 경우는 그 定着의 方法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나⁸⁾, 대체로 作家로부터 年代가 멀어질수록 詭傳이나 變異의 可能性이 훨씬 더 커진다. 龐巖 李賢輔의 作品에서 「歸田錄」 3章은 그의 아들 李叔棟의 自筆本이라 原作을 충실히 轉寫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麋末의 作品들은 거의 400年 以上이나 傳承(주로 口傳)에 의해 가능성이 크다)되다가 18C 以來 定着되었기 때문에 詭傳이나 變異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커서 製作當時의 原形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作品의 變異樣相에 대하여는 沈載完 교수가 「時調의 文獻的 研究」 (1972)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는데⁹⁾, 그는 그 變異要因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었다.

- ① 作品의 原作이 文字定着에 많이 늦었다.
- ② 形式이 短形이므로 唱咏, 模作 改作이 容易했다.
- ③ 表記에 있어 漢字知識이 薄弱하면서 즐겨 이를 쓰려 하였고, 漢字의 音과 意味를 잘못理解한에서 起因하였다.
- ④ 一般的인 言語變遷에 따른 自然發生的 現象으로 用語가 變異되어 가기 때문이다.
- ⑤ 唱咏者가 字句에 拘碍되지 않고 瞬間的으로 或은 無意識的으로 큰 意味變動없는 度에서 改作하는 수가 많았다.
- ⑥ 既存作品의 歌意가 唱咏者에 맞지 않을 때 态意로 改作하거나, 傳授 때의 錯誤에서 起因하였다.
- ⑦ 誦咏者の 主觀的인 感情이나 遊戲心에 依하여 適切히 改作하는 수가 있었다.¹⁰⁾

沈교수는 이와 같이 여러 要因들을 지적하였지만, 이들보다 더 중요한 要因을 看過하고 있는 듯하다. 筆者の 見解로는 위에 든 것들도 물론 變異要因으로 作用하였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後代의 定着

8) 예를 들자면, 傳來의 草本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詭傳이니 變異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그냥 口傳되는 경우에는 와전이나 변이의 정도가 보다 심하다.

9)註 (5)와 같음.

10) 沈載完, 前揭書, p. 395.

者(記錄者)들이 前代의 作品을 그 時代와 함께 生命을 다한 歷史的 遺物로서만 보지 않고 後代에까지 살아서 生動하는; 그리하여 後代人の 生活感情과도 맞아 呼吸을 같이하는 하나의 生命體로서 認識하였던 깊이에, 그 作品들을 當代의 文學趨向이나 生活感情에 맞도록 自然스럽게 改變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前代의 作品들은, 表記法, 語彙, 音韻 등은 물론이고, 形態上의 骨格이 되는 리듬·마저도 後代人の 呼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변모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면 이러한 變貌의 例로서 몇몇 作品을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古人도 날 물보고 나도 古人 ①물뵈 古人를 ②물봐도 너던 걸 알찌 있느 너
던 걸 알찌 있거든 아니 너고 엇별고(李滉, 陶山六曲之三 其三)

이 작품이 後代에 들어서서는 ①「물뵈」가 「못뵈오되」(青가)¹¹⁾, 「못보오니」(源國·源圭·源河·源朴·源皇·海樂·源一·協律·花樂), 「못뵈오니」(源六·源佛) 등으로 變異되고, ②「물봐도」가 「못뵈와도」(瓶歌·源國·源朴·源皇·海樂·源一·協律·花樂), 「못보아도」(詩歌·青洪·青詠·源六·源佛), 「물뵈와도」(源圭), 「못뵈위도」(源河) 등으로 變異되어, 後期時調의 리듬에 맞도록 改作되었다.

歸去來 ①歸去來 말뿐이오 가리 업식 田園이 將蕉호니 아니가고 ②엇별고 草
堂애 清明明月이 나명들명 ③기드나느니 (李賢輔)

이 작품은 後代에 들어 ①「歸去來」가 「歸去來호다」(瓶歌·詩歌·青洪·青가·青詠·青六·歌譜·興比·時調·源國·源圭·源河·源六·源佛·源朴·源皇·源樂·源一·源東·協律·花樂·南太·詩餘·大東)으로, ②「엇별고」가 「엇지홀고」(瓶歌·詩歌·青詠·青六·大東), 「어이
호리」(青洪·時調·源圭·源國·源河·源六·源佛·源朴·源皇·海樂·源一·源東·協律·花樂·南太)로, 또 ③「기드나느니」가 「기다린다」(詩歌·青洪·青가·青詠·青六·源國·源圭·源河·源六·源佛·源朴·

11) 이러한 略名에 대하여는 沈載完, 校本 歷代時調全書, p.13을 참조할 것.

源皇·海樂·源一·源東·協律·花樂·南太·詩餘·大東)으로 역시後期時調의 리듬에 맞도록改作되었다.

山頭에 ①閒雲이 起^き고 水中에 ②白鷗이 飛^い라 無心코 多情^{むじやう}하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애 시르를 낫고 너를 조차 ③노로리라 (李賢輔)

특히 初章에서 리듬이 破格인 이 작품은 後代에 ①「閒雲이 起^き고」가 「閒雲起^き고」(瓶歌·詩歌·青洪·青ガ·青詠·槿樂·青六·永類·興比·東歌·大東)로 ②「白鷗이 飛^い라」, 「白鷗飛^いラ」(瓶歌·海一·海周·詩歌·青洪·青大·青詠·槿樂·青六·永類·東歌·大東)로 각각 두 音步를 한 音步로 統合하여 줄이게 되여, ③「노로리라」는 「노니라(놀니라, 놀이라)」(瓶歌·詩歌·青洪·青詠·槿樂·青六·興比·東歌·大東)으로 後期時調의 리듬에 맞게 고쳐졌다.

그리고

群鳳 모다신의 외가마기 드려오니 白玉 ①사헌 곳애 들 혼아 갓다마는 ②두 어라 凤凰도 飛鳥와 類시니 외서 논들 ③엇더 흐리 (朴仁老)

에서, ①「사헌 곳애」는 「싸헌듸」(瓶歌·青珍·海一·海周·詩歌·青ガ·青詠·青六·源河·花樂·大東)로, ③「엇더 흐리」는 「엇더리」(瓶歌·青珍·海一·海周·詩歌)로 역시 後期時調의 리듬에 맞도록 바뀌어졌고, ②「두어라」는 「鳳凰도 飛鳥와 類시니」(3·6)를 맞추기 위해 탈락되었다. (瓶歌·青珍·海一·海周·詩歌·青ガ·青六)

以上은 初期 時調作品으로서 後代에 널리 愛好되었으며 原形의 變異 樣相을 잘 보여주는 몇몇 作品을 들어본 것인데, 이밖에도 後期 時調의 리듬에 맞도록 原形을 改變시킨 예는 많이 있다.

이와 같이 前代의 作品을, 固型化된 歷史的 遺物로서만 보지 않고, 後代에까지 살아 生動하며 後代人的 生活感情과도 맞아 呼吸을 같이 하는 하나의 生命體로서 인식하였던 까닭에 原作은 後代의 文學趨向이나 生活感情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改變되어갔던 것이다.

時調形態의 變遷은 時代를 따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루어져 온 것 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壬辰倭亂(1592~1598)을 계기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형태간에는 상당한 형태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朝鮮朝의 文化는 이 王亂을 큰 分水嶺으로 하여 前期와 後期로 나뉘며, 兩時代의 文化는 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미 16C 초엽부터 조선사회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内部的으로 마련되고 있던 變化에의 기운이 王亂 및 丙子胡亂을 촉매로 하여 加速的으로 촉진된 까닭에서 인 듯하다.¹²⁾ 文學에 있어서도 이를 계기로 景幾體歌가 소멸하고, 解說時調가 대두하며, 時調와 歌辭에서 內容上 變質을 가져온다는 점 등이 주된 변화로 지적되고 있는데¹³⁾, 이와 같은 文學史 및 文化史一般에서의 중요한 한 轉換點인 王亂을 계기로 하여 時調의 形態도 크게 變貌되는 것이다. 따라서 麗末에서 王亂까지의 時調를 初期時調(또는 前期時調)라 할 때, 王亂이후의 時調는 後期時調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2. 比較對象의 區分과 그 性格

初期時調와 後期時調의 形態比較를 위한 統計의 對象으로는 첫째 作者 및 그 生沒年代가 대체로 밝혀진 平時調 作品, 둘째 그 定着 또는 刊行年代가 分明한 作品으로 하는데¹⁴⁾, 이는 作品의 創作年代와 原形保存 狀態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에서 20首 以上的 作品을 남긴 작가의 作品은 제외하기로 하는데, 이는 제한된 作品數 內에서, 일 個人的 特性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하여 比較對象을 區分하고 그 性格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참고로 上記한 기준에는 들지 않으나 王亂 이전의 初期時調이지만 青丘永言 이후 定着되어 그 傳承過程에서 原形이 대체로 많이 變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作品들도 들어 보기로 한다.

12) 姜萬吉, “壬辰·丙子兩亂의 意義”, 韓國史의 再照明(讀書新聞社 1977), pp.417-421 참조

13) 鄭炳昱, “李朝詩歌의 形態的 特徵”, pp.13-32 참조.

14) 定着 및 刊行年代는 沈載完, 時調의 文獻의 研究, pp.70ff. 참조

A: 壬亂 이전의 初期時調로서 대체로 原形을 잘 保存하고 있는 것 (65首).

- a. 作者 자신의 定着(20首) : 鄭澈(1), 李叔樸(6), 李滉(12), 柳希春(1).
- b. 後人 定着이나壬亂 이전 定着(8首) : 李賢輔(8).
- c. 後人 定着이나 青丘永言 이전 定着(37首) : 朴彭年(1), 金玗(5), 許磁(2首), 許柵(7), 姜翼(3), 權好文(19).

이에서 a는 原形을 충실히 保存하고 있으며, b는 대체로 原形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c는 原形의 變異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 壬亂 이전의 初期時調로서 青丘永言 이후 定着되었으며, 傳承過程에서 原形이 대체로 많이 變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珍本 青丘永言에서 A에 나온 作家의 작품을 제외하고 뽑았으며, 珍本에서 無名氏로 된 것 중 六堂本에서 有名氏인 경우는 六堂本을 따랐다(*한것). (46首) : 珍本의 作品番號 7•8•9•10•11•12•13•14•15•16•17•23•24•25•26•89•90•91•92•95•106•107•111•216•286•287•288•291•293•295*•305*•313*•341*•348*•358*•359*•363*•364*•365*•386*•393*•403*•417*•426*•444*•449*.

C: 青丘永言 편찬(英祖 3年 : 1727)을 중심으로 前後 50年(肅宗~英祖代 : 1675~1777) 동안에 活動 또는 死亡한 작가의 작품으로 時調文學事典에서 뽑음(113首) : 柳赫然(1), 姜栢年(1), 朴泰輔(2), 宋時烈(2), 李華鎮(3), 南九萬(1), 孫萬雄(1), 申靖夏(3), 李澤(2), 肅宗(2), 金聖器(8), 朱義植(14), 金三賢(6), 金裕器(12), 金斗性(7), 金昌業(3), 金昌翕(1), 俞崇(2), 安瑞羽(2), 張鴻翼(1), 尹淳(1), 趙顯命(1), 松桂烟月翁(13), 金默壽(5), 金兌錫(2), 文守彬(1), 廉世信(6), 李廷蓋(11).

이들의 作品에서 그 作者에 대해 異論이 있는 작품은 제외하였는데, 肅宗~英祖代는 壬亂後 時調의 全盛期라고 할 수 있을만치 作品 創作이 活潑하고 歌集의 編纂도 이루어진 시기니 만치 後期時調의 面貌를 가장 잘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三. 初期時調와 後期時調의 形態 比較

1. 平均值

平均值란 抽象的인 것이어서 實際의 現象을 正確히 보여주기는 어려우나, 이를 통하여서도 概略的인 몇 가지 現象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表 1)

章 句 音步		初 章				中 章				終 章									
		前 句		後 句		前 句		後 句		前 句		後 句							
		1	2	3	4	1	2	3	4	1	2	3	4						
音 步 別	A	2.78	4.20	3.09	3.98	2.52	3.52	3.29	3.80	3.02	5.35	4.03	3.06						
	B	2.89	4.33	3.43	4.07	2.43	3.57	3.43	4.02	3	5.54	3.91	3.02						
	C	2.84	4.19	3.43	4.06	2.59	3.68	3.46	4.04	3	5.72	3.98	3.12						
句 別	A	6.98		7.07		6.04		7.09		8.37		7.09							
	B	7.22		7.50		6.00		7.45		8.54		6.93							
	C	7.03		7.49		6.27		7.50		8.72		7.10							
章 別	A	14.05				13.13				15.46									
	B	14.72				13.45				15.47									
	C	14.52				13.77				15.82									
全 體	A					42.67													
	B					43.64													
	C					44.11													

[現象 1] : 대체로 A는 C에 비해 音節數가 적었다.

音步別로 보면, 初2•終1•終3이 근소하게 나마例外를 보이지만, 初1•初3•初4•中1•中2•中3•中4•終2•終4의 대부분의 音步에 이 현상은 나타나며, 특히 初3(0.33), 中4(0.24), 終2(0.37)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난다.

句別로는例外없이 全般的으로 나타나며, 특히 初後(0.42), 中後(0.41), 終前(0.35)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初3•中4•終2의 音步에서 이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 데서 연유한다. 章別로는 中章(0.64)에

서 가장 두드러지며, 終章(0.36)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全體的으로는 1.44로서 거의 1音節 半의 差가 나타나게 된다.

〔現象 2〕: 各章 前・後句의 차이가 A보다 C에서 커졌다.

各章 前・後句間 차이는 A에서 初章 0.09, 中章 1.05, 終章 1.28이던 것이 C에서는 初章 0.46, 中章 1.23, 終章 1.62 初章에서 +0.37, 中章에서 +0.18, 終章에서 +0.34의 증가를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現象 1〕이 句別로 볼 때, 初中章에서는 後句에, 終章에서는 前句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現象 3〕: B는 대체로 A보다 C에 더 가깝거나, 또는 그 中間의 면모를 보인다.

平均值만으로 이를 斷定할 수 없겠지만, (表 1)을 통해 볼 때, 音步에서 初2, 中1, 終4, 句에서 中前・終後의 경우를 제하고는 모두가 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B가 傳承過程에서 그 原形(A와 近似한)을 잃고 後期形으로 變異된 것이거나, 또는 그 過程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構成音節數

① 音步別

(表 2)에서 A, B, C의 上段은 有義範圍(10% 以上)을, 下段은 頻出值(25% 以上)을 그 頻度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有義範圍에서 굽은 숫자는 75% 以上的 支配的인 頻度를, 圓으로 둘러싼 숫자는 90% 以上的 歷倒의 頻度를 보이는 音節數를 표시한 것이며, 頻出值에서 둘 以上的 경우, 最頻值와 25% 以上的 큰 差를 보이는 것은 ()속에 넣었다.

이 (表 2)를 통해 볼 때, 有義範圍에서 初 3(A : 2-4, C : 3-4)・中 4(A : 3-4, C : 4)・終2(A : 4-6, C : 5-7)・終4(A : 2-4, C : 3-4)를 통해 또 頻出值에서 初1・初3・中2・中3・終2를 통해서 앞서의 〔現象 1〕을 確認

(表 2)

	初 章				中 章				終 章			
	1	2	3	4	1	2	3	4	1	2	3	4
A	2-3 96.92	4-5 90.77	2-4 100	4 86.15	2-3 100	3-4 84.61	3-4 93.85	3-4 89.23	3 92.31	4-6 86.15	4 84.62	2-4 100
	3(2) 66.15 (30.77)	4 70.77	3 66.15	4 86.15	3,2 52.31 47.69	3,4 47.69 36.92 (30.77)	3(4) 63.08 97.83	4 69.23	③ 92.31	5 55.38	4 84.62	3 72.31
B	2-3 97.82	4-5 97.83	3-4 100	4 93.48	2-3 100	3-4 100	3-4 95.66	4 97.83	3 100	5-6 91.31	4 91.30	3 97.83
	3 84.78	4(5) 69.57 (28.26)	3,4 58.70 41.30	④ 93.48	2,3 56.52 43.48	4,3 56.52 43.48	3,4 47.83 47.83	④ 97.83	③ 100	5,6 54.35 36.96	④ 91.30	③ 97.83
C	2-3 95.57	4-5 95.58	3-4 99.11	4 93.81	2-3 98.23	3-4 96.46	3-4 96.43	4 95.53	3 100	5-7 95.58	4 95.58	3-4 99.12
	3 75.22	4 83.19	3,4 59.29 39.82	④ 93.81	3,2 55.75 42.48 (35.40)	4(3) 61.06 46.43	3,4 50 95.53	④ 100 26.55 23.01	③ 100	5,6,7 46.02 26.55	④ 95.58	3 86.73

할 수 있으며, 有義範圍에서 初3·中4·終2를 통해, 頻出值에서 初1·初3·中2·中3·終2등을 통해서 [現象 3]도 확인할 수 있다.

[現象 4]: A는 C보다 集中度가 훨씬 약하다.

바꾸어 말하면, 後期時調에 들어 音步를 구성하는 音節數가 보다 더 固定化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 現象은 初3·中3·終2와 같이 [現象 1]에서 派生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것인데, 初1·初2·初4·中2·中4·終1·終3·終4에서 特定音節의 頻度가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으며, 특히 中4의 경우는 A에서 有義範圍: 3-4, 最頻值인 4音節이 69.23%를 보이는 데 비하여 C에서는 有義範圍가 4音節 하나뿐이며 95.53%라는 압도적인 集中度를 보이고 있다.

全體的으로 보아 이 集中性은 終1·初4·終3가 가장 높고, 中4·終4·初2·初1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中1·中2·中3·終2·初3은 낮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注目할 점은 中章의 集中度가 初章, 終章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이다. 앞에서 든, 集中度가 낮은 音步들 중 終2·初3은 [現象 1]로 인한 不可避한 것이라 하겠지만, 中1·中2·中3은 이와 관계없이 集中度가 낮은데, 頻出值도 둘씩이나 되어 어느 一定한 音節로 固定化되는 경향이 거의 없다. 이러한 中章의 不安定한 性向은 辭說時調등에서 대체로 中章이 주로 길어지게 되는 현상¹⁵⁾과도 有關할 듯하다.

② 句別

(表 3)

	初 章		中 章		終 章	
	前 句	後 句	前 句	後 句	前 句	後 句
A	6-8 96.92	6-8 98.46	5-7 87.69	6-8 95.38	8-10 83.07	6-8 96.92
	7(6) 52.31 (26.15)	7 60	5.7(6) 35.38 27.69 (24.62)	7 58.46	8 56.92	7 63.08
B	6-8 97.83	7-8 97.83	5-7 100	7-8 97.83	8-9 91.30	7 89.13
	7(8) 58.70 (28.26)	7, 8 54.35 43.48	6, 5, 7 39.14 30.43 30.43	7, 8 50 47.83	8, 9 54.35 36.96	7 89.13
C	6-8 94.79	7-8 96.46	5-7 92.92	7-8 95.58	8-10 95.58	7 88.50
	7 64.60	7, 8 55.75 40.71	7, 5 44.25 28.32	7, 8 49.56 46.02	8, 9, 10 46.02 26.55 23.01	7 88.50

15) 鄭炳昱, 前揭論文, p.5 참조

(表 3)도 (表 2)와 같은 方式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有義範圍에서 初後, 中後를 통해, 頻出值에서 初前, 初後, 中前, 中後, 終前을 통하여 [現象 1]을 再確認할 수 있으며, 中章 및 終章 前·後句의 頻出值 比較를 통해 [現象 2]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初前의 頻出值, 初後의 有義範圍와 頻出值, 中後의 有義範圍와 頻出值, 終前의 頻出值등을 통하여 [現象 3]도 再確認할 수 있다. 또 初前의 頻出值, 初後의 有義範圍, 中後의 有義範圍, 終後의 有義範圍와 頻出值 등을 통하여 [現象 4]도 確認할 수 있다.

③ 章別 및 全體

(表 4)

	初 章	中 章	終 章	計
A	13-15 87.70	12-15 86.16	14-17 93.83	40-45 89.24
	14 44.62	14 30.77	15, 16 36.92 26.15	없 음
	14-16 95.66	12-15 100	15-16 86.97	42-45 86.97
	14, 15 43.48 39.14	14, 13 36.96 28.26	15, 16 47.83 39.14	44 32.61
B	14-15 78.76	12-15 95.57	15-17 93.80	42-46 81.50
	14, 15 47.79 30.97	13, 15, 14 28.32 27.43, 26.55	15, 16 42.48 29.20	없 음
C				

(表 4)의 章別 및 全體 音節數 比較에서는, 初章의 有義範圍와 頻出值, 終章의 有義範圍, 그리고 全體 有義範圍를 통해 [現象 1]과 [現象 3]을 再三 確認할 수 있으며, 初章·終章 및 全體의 有義範圍의 分布間隔을 통해 [現象 4]도 再確認할 수 있다.

3. 長短리듬

앞서 序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音節數는 대체로 音量과 相應하여 音節群이 가지는 音量의 長短排列에 의한 長短律이 우리 詩歌의 律格을 결정하는 資質이라는 견해에서 時調의 長短排律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前·後 単位들 間의 長短比較를 통해 뒷 単位의 音量이 많은 경우에는 +로, 앞 単位의 音量이 많은 경우에는 -로 표시하고 그 音量差를 밝히며,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① 音步間

(表 5)

	初 前	初 後	中 前	中 後	終 前	終 後
A	+1, +2 47.69 38.46	+1 56.92	+1 58.46	+1(0) 49.23(29.23)	+2 61.54	-1 63.08
	3-4 (2-4) 46.15(23.08)	3-4 56.92	2-3, 3-4 32.31 26.15	3-4 49.23	3-5 55.38	4-3 61.54
B	+1, +2 56.52 36.96	+1, 0 56.52 39.13	+1(+2) 60.86(26.11)	0, +1 47.83 47.83	+2, +3 54.35 36.96	-1 89.13
	3-4(3-5) 56.52(26.11)	3-4, 4-4 54.35 39.13	2-3 3-4 30.43 30.43	2-4 26.11	4-4, 3-4 47.83 47.83	3-5, 3-6 54.35 36.96
C	+1(+2) 62.83(27.43)	+1, 0 58.31 39.82	+1 72.57	+1, 0 50.00 45.54	+2, +3·4 46.02 26.55 23.01	-1 84.96
	3-4 61.95	3-4, 4-4 55.75 39.82	3-4, 2-3 44.25 28.32	3-4, 4-4 48.21 45.54	3-5, 3-6, 7 46.02 26.55 23.01	4-3 84.96

(表 5)에서 A·B·C의 上段은 각句 앞뒤 音步間의 音量差를, 下段은 그 實際의 音節值를 25% 以上의 頻出值로 나타낸 것이다.

이 表에서 初後·中前·中後·終前의 音節值를 통해 [現象 1]을 初後·中後·終前의 音量差 및 音節值를 통해 [現象 3]을 다시 確認할 수 있다. 또 각句內의 頻出值를 合算하여 보면. A에서 初前 86.15%, 69.23%, 初後 56.92%, 56.92%, 中前 58.46%, 58.46%, 中後 78.46%,

49.23%, 終前 61.54%, 55.38%, 終後 63.08%, 61.54%인 대비해 C에서는 初前 90.26%, 61.95%, 初後 98.13%, 95.57%, 中前 72.57%, 72.57%, 中後 95.54%, 93.75%, 終前 95.58%, 95.58%, 終後 84.96%, 84.96% 월씬 더 높은 頻度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하여 [現象 4]도 확인할 수가 있다.

[現象 5]: 句內 各 音步間의 短長隔差(뒷 音步가 길다)가 A에 비해 C에서는 減小되었다. (終前은 增大)

音量差를 보면, 初前은 A : +1·+2에서 C : +1·(+2)로, 初後는 A : +1에서 C : +1·0로, 中後는 A : +1·(0)에서 C : +1·0로 앞뒤 音步間의 音量差(終後를 除外하고는 앞 音步보다 뒷 音步가 길거나 또는 대등하다)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終前의 경우는 [現象 1]이 終2에 주로 나타난 까닭으로 오히려 音量差가 커졌다.

② 句間

(表 6)

	初 章	中 章	終 章
A	0 (+1) 43.08(23.08)	+2 (0) 33.85(24.62)	-1 (-2) 36.92(21.54)
	7-7 32.32	(5-7, 7-7) (20, 18.46)	8-7 33.85
B	0 (+1) 45.65(23.91)	+2, +1 41.30 30.43	-1, -2 50 41.30
	7-7 (7-8) 34.79 (21.74)	(6-8, 5-7) (21.74, 19.57)	8-7, 9-7 47.83, 34.79
C	0, +1 44.25 35.40	+1, (+2, 0) 37.17(21.24, 20.35)	-1, -2(-3) 44.25, 26.55(19.47)
	7-7, (7-8) 38.94(24.78)	(7-8, 7-7) (23.01, 18.58)	8-7, (9-7, 10-7) 40.71(23.89, 19.47)

(表 6)은 대체로 頻度가 낮게 나타나는데, 各章의 音節值를 통해 [現象 1]을, 初章의 音節值와 終章의 音量差 및 音節值를 통해 [現象 3]을 다시 確認할 수 있으며, 初·終章의 音量差와 音節值를 통해 [現象 2]도 확인할 수 있다. 또 頻出值들의 頻度를 合算하여 볼 때, A보다는 C가 훨씬 더 頻度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現象 4]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現象 4]의 說明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中章의 不安定한 性向도 音節值 比較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中章에서는 25% 以上의 頻度를 보이는 音節值가 하나도 없다)

③ 章間

章間 比較에서는 리듬의 比較라기보다는 그냥 길이의 比較에 그칠 수 밖에 없는데, 10% 以上의 頻度를 보이는 것만 들기로 한다.

(表 7)

	A	B	C
終>初>中	21 32.31	19 41.30	34 30.09
終>初=中	13 20	7 15.22	31 27.43
終=初>中	10 15.38	9 19.57	15 13.27
終>中>初	9 13.85	3 6.52	16 14.16

이 表를 통하여 앞서의 여러 現象들을 확인하는 일은 不可能한데,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지적할 수가 있다.

章別 길이는 대체로 終章이 가장 길고, 初章과 中章間에서는 初章이 다소 길거나 비등한 경우가 많다.

4. 基準型

時調의 基準型 設定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많은 學者들이 그 基準型(또는 基本型)을 設定한 바 있지만, 漠然하거나 또는 抽象的 이어서 實際 符合되는 頻度가 너무도 낮은 경우가 많았다.¹⁶⁾

16) 참고로 몇몇 基本型(基準型)을 들어 보기로 하면,

李秉岐;

初章 1(6~9字) 2(6~9字)

時調는 定型詩이기는 하나 상당히 自由로운 性格을 띠고 있어서 이를 한 特定한 音節數로만 規定하기가 곤란하다. 또 그렇다고 漢然할 정도의 許用範圍를 둘 수도 없다. 따라서 筆者는 종래의 音步爲主 音節數基準型에서 最頻值만을 인정함으로써 그 符合되는 頻度가 지나치게 낮은 폐단과, 句爲主 音節數 基準型에서 보이던 漢然한 非定型性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10% 以上의 有義範圍와 25% 以上의 頻出值로써 基準型을 設定해보고자 한다. 또 前後 單位間의 長短리듬도 考察하기로 한다. 이와같이 하여 여러가지 方法으로 基準型을 假想으로 設定하여 그 妥當性 如否를 알아보기로 한다.

中章 1(5~8字) 2(6~9字)

終章 1(3字) 2(5~8字) 3(4·5字) 4(3·4字)

李殷相:

初章 第一句 2~3字

第二句 2~6字

第三句 2~5字

第四句 4~6字

中章 第一句 1~5字

第二句 2~6字

第三句 2~5字

第四句 4~6字

終章 第一句 3字

第二句 5~8字

第三句 4~5字

第四句 3~4字

李光洙:

初章 3·4·4·4(15音)

中章 3·4·4·4(15音)

終章 3·5·4·3(15音)

趙潤濟:

初章 3·4·4(3)·4

中章 3·4·4(3)·4

終章 3·5·4·3

安廓:

初章 第一句 7字 第二句 8字

中章 第一句 7字 第二句 8字

終章 第一句 8字 第二句 7字

등이 있다.

① 音步 頻出值

	初 章				中 章				終 章			
	1	2	3	4	1	2	3	4	1	2	3	4
A	3(2)	4	3	4	3(2)	3(4)	3(4)	4	3	5	4	3
C	3	4	3(4)	4	3(2)	4(3)	3(4)	4	35(6,7)	4	3	

有効頻度 A: 6/65, 9.23%

C: 50/112, 44.64%

② 音步 有義範囲

A	2-3	4-5	2-4	4	2-3	3-4	3-4	3-4	3	4-6	4	2-4
C	2-3	4-5	3-4	4	2-3	3-4	3-4	4	3	5-7	4	3-4

有効頻度 A: 24/65, 36.92%

C: 76/112, 67.86%

③ 句 頻出值

	初 前	初 後	中 前	中 後	終 前	終 後
A	7(6)	7	5(7,6)	7(8)	8	7
C	7	7(8)	7(5)	7(8)	8(9,10)	7

有効頻度 A: 6/65, 9.23%

C: 40/112, 35.71%

④ 句 有義範囲

A	6-8	6-8	5-7	6-8	8-10	6-8
C	6-8	7-8	5-7	7-8	8-10	7

有効頻度 A: 42/65, 64.62%

C: 78/112, 69.64%

⑤ 句内 音歩間 長短

	初 前	初 後	中 前	中 後	終 前	終 後
A	+1(+2)	+1	+1	+1(0)	+2	-1
C	+1	+1(0)	+1	+1(0)	+2(+3·4)	-1

有効頻度 A: 8/65, 12.31%

C: 41/112, 36.61%

⑥ 章內 句間 長短

	初 章	中 章	終 章
A	0(+1)	+2(0,+1)	-1(-2)
C	0(+1)	+1(+2,0)	-1(-2,3)

有効頻度 A: 24/65, 36.92%

C: 65/112, 58.04%

有効頻度에서 C가 112수로 된 것은 松桂烟月貌의 作品 1首(時調文學事典 1203)에서 中章 後句가 「4」音節로 되어 있는데, 나누기가 곤란하여 統計에서除外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을 통해 볼 때, ①의 音步 頻出值, ③의 句 頻出值 ⑤의 句內·音步間 長短들은 有効頻度가 너무도 낮아서, 이들로써 또는 이들 중의 어느 하나로써 基準型을 삼는다는 일은 基準型으로서의 意味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基準型의 範圍 内에서 各音步 또는 各 句別로 가장 많은 頻度를 보이는 現象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며, 基準型은 보다 큰 有効頻度를 보이는 것으로써 設定해야 할 것이다.

②, ④, ⑥은 有効頻度에서 A가 ②: 36.92%, ④: 64.62%, ⑥: 36.92

(表 8)

		初 章				中 章				終 章				有効頻度							
		前 句		後 句		前 句		後 句		前 句		後 句		事例	%						
		1	2	3	4	1	2	3	4	1	2	3	4								
音步	A	2-3	4-5	2-4	4	2-3	3-4	3-4	3-4	3	4-6	4	2-4	24/65	36.92						
	C	2-3	4-5	3-4	4	2-3	3-4	3-4	4	3	5-7	4	3-4	76/112	67.86						
句	A	6-8		6-8		5-7		6-8		8-10		6-8		42/65	64.62						
	C	6-8		7-8		5-7		7-8		8-10		7		78/112	69.64						
句間 長短	A	0(+1)				+2(0,+1)				-1(-2)				24/65	36.92						
	C	0(+1)				+1(+2,0)				-1(-2,3)				65/112	58.04						

%, C 가 ②: 67.86%, ④: 69.64%, ⑥: 58.92%로서 ①, ③, ⑤에 비해 훨씬 높은 頻度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基準型으로 設定하기에 適合하다. 그러므로 筆者는 音步 및 句別 有義範圍와 章內 句間 長短을 土臺로 하여 時調의 基準型을 設定하고자 한다. (표 8)

위의 基準型에 符合되는 作品은 A에서 22수, C에서 56수로 각각 33.85%, 50%의 有効頻度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多少 音通성이 있는 基準型을 設定함으로써, 從來 基準型(또는 基本型)의 폐단이던, 有効頻度의 지나친 낮음과 漠然한 非定型性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①, ③, ⑤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基準型의 範圍 内에서 各 音步 또는 各 句別로 가장 높은 頻度를 보이는 現象이다.

이 基準型을 통하여 [現象 1], [現象 2], [現象 4]를 다시 確認할 수 있는데, 有効頻度로 볼 때, [現象 4]는 各 單位들의 集中度를 말했지만 全體的으로도 A는 C에 비해 集中度가 훨씬 微弱하고 不安定한 面貌를 보여 준다.

四. 初期時調의 形態上 特徵

앞에서 살펴본 바를 整理하여 初期時調의 形態上 特徵을 들어 보기로 한다. 그런데 叙述의 便宜를 위해 初期時調의 形態가 後期時調에서는 어떻게 變貌되었는가를 설명하는 方式을 취하기로 한다. 이는 初期時調의 形態上 特徵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못하지만, 時調形이 歷史的으로 보아 初期形에서 後期形으로 变천되어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不得已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먼저 앞에서 밝힌 現象들을 들어 보기로 하자.

[現象 1]: 대체로 初期時調는 後期時調에 비해 音節數가 적었다.

[現象 2]: 各章 前·後句間 차이가 初期時調보다 後期時調에서 커졌다.

[現象 3]: 後期에 定着된 初期時調는 初期時調의 形態보다 後期時調

의 形態에 더 가깝거나, 또는 그 中間的인 면모를 보인다.

[現象 4]: 初期時調는 後期時調보다 集中度가 훨씬 약하다.

[現象 5]: 句內 各音步間의 短長隔差(뒷 音步가 길다)가 初期時調에 비해 後期時調에서 減小되었다. (終章前句는 增大함)

이제 이러한 諸現象들을 各 構成單位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 初章

① 第 1 音步

有義範圍 2—3音節에서 音節度가 적은 2音節이 줄어들고, 3音節이 많아졌다.

② 第 2 音步

平均值에서도 나타났듯이 [現象 1]과는 반대로 多音節인 5音節이”줄어들고 少音節인 4音節이 늘어났다.

③ 前句

有義範圍 6—8音節에서, 第 1 音步의 變貌로 인해 6音節이 줄어들고, 第 2 音步에서의 變貌로 인해 8音節도 줄어들게 되어 7音節이 많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集中度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 第1·2音步間의 長短격차도 감소되어, 2—4, 3—5調가 줄어들고 2—4調가 늘어났다.

④ 第 3 音步

有義範圍 2—4音節에서 2, 3音節이 줄어들고 4音節이 크게 늘어났다.

⑤ 第 4 音步

別差는 없으나, 4音節에의 集中度가 높아져 거의 固定化되었다.

⑥ 後句

第3·4音步에서의 变모에 따라 6音節은 크게, 7音節은 多少 줄어들고, 8音節이 현격히 늘어났다. 또 같은 이유로 2—4調가 줄어들고 4—4調가 크게 늘어나 音步間 長短격차가 감소되었다.

⑦ 初章

後句에서 多音節인 8音節이 크게 늘어남으로 인하여 7—8調가 중대하

는 등 多間격차가 커졌다.

(2) 中章

① 第 1 音步

別差는 없으나 有義範圍 2—3音節에서 多音節인 3音節이 약간 늘어나고, 少音節인 2音節이 약간 줄어들었다.

② 第 2 音步

3音節이 꽤 줄어들고, 4音節이 크게 늘어났다.

③ 前句

第 1 · 2音步의 변모로 인해, 5音節이 줄어들고, 7音節이 크게 늘어났으며, 3—3調등이 감소하고 3—4調가 크게 증대하였으며, 2—4調도 약간 증대하였으나, 音步間 격차는 別差 없다.

④ 第 3 音步

3音節이 크게 줄어들고, 4音節이 크게 늘어났다.

⑤ 第 4 音步

3音節이 쓰이지 않게 되고, 4音節이 현격한 증대를 보여 거의 固定化 되었다.

⑥ 後句

第 3 · 4音步의 변모로 인해 6音節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고, 7音節도 줄어들며, 相對的으로 8音節이 현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 4—4調가 현격히 증대하였으나 音步間 격차는 別差 없다.

⑦ 中章

5—7調, 6—8調등이 감소하였으나, 7—8調가 현격히 증대하였으며, 5—8調도 늘어나 句間 격차는 오히려 약간 증대한 느낌이 듈다.

(3) 終章

① 第 1 音步

3音節의 集中度가 늘어나 完全 固定化되었다.

② 第 2 音步

4, 5音節이 줄어들고, 6, 7音節이 늘어났다.

③ 前句

第2音步의 변모로 인하여 8音節이 줄어들고, 9, 10音節이 늘어났으며 3—5調가 줄어들고 3—6, 3—7調가 늘어나, 音步調 격차가 크게 증대되었다.

④ 第3音步

4音節의 集中度가 높아져 거의 固定化되었다.

⑤ 第4音步

2音節이 줄어들고 3音節이 크게 늘어나, 3音節에의 集中度가 크게 높아졌다.

⑥ 後句

6音節이 크게 줄어들어 거의 쓰이지 않게 되고, 8音節도 줄어들었으며, 7音절이 현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 4—2調가 줄어들고, 4—3調가 현격히 증대함으로 인하여 音步間 격차가 감소되었다.

⑦ 終章

8—7調가 늘어난 反面에, 8—8調가 줄어들고, 9—7, 10—7調가 상당히 늘어나 句間 격차는 크게 증대되었다.

以上과 같은 變貌를 보인 初期時調에서 後期時調에 비해 큰 差異를 보이는 音步로는 初 3, 中 2, 中 3, 中 4, 終 2를 들 수 있는데, 初 3에서 4音節은 18.28%의 증대률, 中 2에서 4音節은 24.14%의 증대률, 中 3에서 4音節은 15.66%의 증대률, 中 4에서 3音節은 20%의 감소률, 4音節은 26.30%의 증대률, 終 2에서 7音節은 15.32%의 증대률 後期時調의 形態에서 나타내 준다. 그리고 이러한 現象이 中章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中章의 流動的인 變貌 可能性을 알 수 있다.

句內 音步間 長短 리듬에 있어서는 全句에 걸쳐 큰 變貌를 보이게 되는데 初前에서 3—4調가 15.80%, 初後에서 4—4調가 22.90%, 中前에서 3—4調가 18.10%, 中後에서 4—4調가 25.54%, 終前에서 3—7調가

15.32%, 終後에서 4—3調가 23.42%씩의 증대를 後期時調의 形態에서 보여 준다. 이러한 리듬上의 변모는 前句보다 後句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 같이 特定한 리듬이 현저하게 증대하는 데 비해 다른 特定한 리듬이 比肩할 만큼의 감소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볼 때, 初期時調에서의 多樣하던 리듬 感覺이 後期에서는 少數의 特定 리듬으로 集中化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結論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壬亂 以前의 初期時調는 壬亂 以後의 後期時調에 비해 그 形態上 상당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差異點 中 뛰렷이 드러나는 몇몇 現象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체로 初期時調는 後期時調에 비해 각 單位들을 구성하는 音節數 가 적었다.

② 初期時調는 後期時調에 비해 特定한 音節數와 리듬에 대한 集中度 가 훨씬 약했다.

③ 初期時調는 後期時調에 비해, 各章 前·後句間 차이가 적었으며, 각句 前·後 音步間 차이가 커졌다. (終章 前句에서는 적었다)

이와 같이 初期時調는 後期時調에 비해 보다 短型의 形態의 制約이 보다 약한 傾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青丘永言의 編纂 以來 後期에 들어서서 定着된 初期時調는 初期時調의 形態보다는 後期時調의 形態에 더 가깝거나, 또는 그 中間의 面貌를 보이며, 이는 後代의 定着者들이 前代의 作品을 그 時代와 함께 生命을 다한 歷史的 遺物로서만 보지 않고, 後代에까지 살아서 生動하는, 고리하여 後代人の 生活感情과도 맞아 呼吸을 같이하는 生命體로서 認識하였던 까닭에, 當代의 文學趨向이나 生活感情에 맞도록 自然스럽게 改變시킨 데서 起因하는 現象으로 보인다. 또, 初·終章에 비해 中

章은 單位構成 音節數와 單位間 리듬에서 集中度가 낮은 流動性을 보여 주는데, 이 流動性은 곧 解說時調에서 주로 中章이 平時調型으로부터 벗어나 길어지게 되는 現象과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初期時調와 後期時調間의 形態上 差異點을 理解하게 될 때, 우리는 時調의 實相과 그 歷史的 變遷樣相을 보다 正確히 把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